

설교

“나를 보내신 자리”



주님 품 안에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의 시간
2. 하나님의 장소
3. 하나님의 방법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9절)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10절)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18:39)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11절)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12절)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14b절)

(그러자) 주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15a절)



엘리야 – My God is Yahweh

바알 – Where is My Prince?

엘리사 – My God Saves





내가 돌아가야 할 돌아봐야 할 자리